

2017년 사회복지직 한국사 해설(B 책형), 3월 18일 시행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다음 중 『성학집요』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기이원론적 이기론을 통하여 이(理)의 자발성이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② 신하는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③ 향약의 전국 시행, 수미법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 ④ 기자의 행적을 정리한 『기자실기』를 편찬했다.

1. 정답 : ①

『성학집요』의 저자는 ‘율곡 이이’이다.

- ① 이이는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으로 발전시켜 기(氣)의 차별성을 중시하였다.
- ② 이이의 성학군주론은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③ 이이는 해주향약, 서원향약 등을 만들어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공납의 폐단이 심해지자 현물 대신 쌀을 거두는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④ 이이의 『기자실기』는 기자를 높이 존숭하였고, 16세기 성리학적 명분론의 확산과 삼한정통론 확립에 기여하였다.

2.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조약에 해당하는 것은?

- | |
|---|
| 1. 청·일 양국 군대는 4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동시 철병할 것 |
| 2. 청·일 양국은 조선국왕의 군대를 교련하여 자위할 수 있게 하되, 외국 무관 1인 내지 여러 명을 채용하고 두 나라의 무관은 조선에 파견하지 않을 것 |
| 3. 장차 조선에서 변란이나 중대사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출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문서로 조회하고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하여 잔류시키지 않을 것 |

- ① 한성 조약 ② 제물포 조약
- ③ 시모노세키 조약 ④ 텐진 조약

2. 정답 : ④

④ 1884년 갑신정변의 결과 청·일 양국 사이에 군대 철수, 청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인정한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1885).

- ① 한성 조약은 갑신정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에 손해배상금과 공사관 신축비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② 제물포 조약(1882)은 임오군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의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였다. ③ 시모노세키 조약(1895)은 청·일 전쟁의 결과 청·일 양국이 맺은 조약으로, 이 조약으로 인해 일본이 요동반도를 할양받았으나 이후 삼국간섭으로 다시 반환하였다.

3. 다음은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안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은 모두 한전이었는데, 수리시설이 갖춰지고 메벼와 찰벼가 맛이 좋으니 수전을 버리겠는가. (㉠)이란 평평한 농지인데 나무를 베어 내노라 힘을 들였고 산과 골짜기가 이미 개간되었으니, 이러한 밭을 버리겠는가.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분배해 주는 것인데, 호구의 증감이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다. 금년에는 갑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가 명년에는 을의 비율로 분배해야 하므로 조그마한 차이는 산수에 능한 자라도 살필 수 없고 토지의 비옥도가 경마다 묘마다 달라 한정이 없으니, 어떻게 균등하게 하겠는가.

- | | | | |
|------|----|------|----|
| ㉠ | ㉡ | ㉠ | ㉡ |
| ① 한전 | 균전 | ② 정전 | 여전 |
| ③ 여전 | 한전 | ④ 정전 | 균전 |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3. 정답 : ④

정약용은 「전론(田論)」을 통해 정전제, 균전제, 한전제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 정전제는 토지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구획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정약용이 『경세유표』를 통해 이상적 토지 제도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정전을 구획하기가 힘들고, 토지를 많이 소유한 호세가들이 반대하며, 사전을 매입할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전론을 시행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 또한 균전제는 토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이를 표준으로 삼는 방법인데, 당시 조선은 호구의 증감이 수시로 변동되며 토지의 비옥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4. 정답 : ③

ㄱ. 1876년 1차 수신사 파견, ㄴ. 1880년 2차 수신사 파견, ㄷ. 1881년 4월 조사 시찰단 파견, ㄹ. 1881년 9월 영선사 파견, ㄺ. 1883년 보빙사 파견의 순서이다.

5. 다음 지문이 가리키는 신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박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의 기사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의 일까지 기재하여 국중에 알리는 동시에 열국에까지 널리 알리기로 하고, 이름을 旬報라 하며...

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1883년 창간되었으며, 한문체로 발간된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 ②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하였고, 내용에 따라 한글 혹은 한문만을 쓰기도 하며 독자층을 넓혀 나가고자 하였다.
- ③ 한글판, 영문판을 따로 출간하여 대중 계몽을 통한 근대화를 촉진하고, 외국인에게 조선의 실정을 제대로 홍보하여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④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일간지로 주로 유학자층의 계몽에 앞장섰다.

5.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1883년 박문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 창간사이다.

- ① 3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박영효의 주도로 박문국을 설치(1883)하여 근대적 인쇄 기술을 도입하였고, 박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 한성순보는 순한문체로 정부의 개화 정책을 소개하는 관보의 성격을 지녔다.
- ② 한성주보에 대한 설명이다. 갑신정변으로 한성순보 발간이 중지되었으나, 신문 발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성주보를 발행하였다. 한성주보는 기본적으로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였으나, 내용에 따라 순한문과 순한글로 기사를 작성하여 독자층을 넓히고자 하였다.
- ③ 1896년에 발간된 독립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독립신문은 순 한글과 영문으로 간행되어 외국인에게도 조선의 사정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또한, 독립 협회의 기관지로서 국민의 대변자 구실을 했을 뿐 아니라 서구의 근대 사상과 학문을 전파하는 데 공헌하였다.
- ④ 황성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의 일간지로, 유림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본신참의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였다.

6. 다음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반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 화폐가 출토되었다.
- ②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는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이 발견되었다.
- ③ 단양 수양개에서 발견된 아이의 뼈를 ‘홍수아이’라 부른다.
- ④ 울주 반구대에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

6. 정답 : ①

- ① 반량전은 중국 진(秦)대의 청동 화폐로 사천 늑도 유적 등지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한반도와 중국 간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②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신석기 시대에는 해안가나 강가에서 원형이나 장방형의 반지하 형태의 움집을 만들었다.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의 움집은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였다.
- ③ ‘홍수 아이’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홍수굴에서 발견되었다.
- ④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새겨진 암각화는 고령 장기리(양전동) 암각화이다.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거북, 사슴, 호랑이, 토끼 등과, 사냥하는 장면과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7. 삼국시대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라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원칙이며 회의의 의장은 상좌평이다.

- ② 백제는 관품 구별에 따라 자 · 단 · 비 · 녹색의 공복을 입었다.
- ③ 신라는 진덕여왕대 집사부와 창부를 통합해 정무기관인 품주를 설치하였다.
- ④ 국상, 대대로, 막리지 등은 고구려에서 재상의 직위를 지칭한다.

7. 정답 : ④

④ 고구려의 중앙 관제는 초기에는 좌보·우보를 두었다가 국상으로 변화하였고, 6세기 이후에는 대대로(막리지 또는 대막리지)가 수상으로 국정을 총괄하였다.

① 신라 화백회의의 의장은 상대등이며,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상좌평은 백제의 귀족회의인 정사암 회의 의장이다. ② 백제 고이왕 때 자색·비색·청색의 3색 공복제가 정비되었다. ③ 진덕여왕 대 기존의 품주가 국가의 기밀사무를 맡은 집사부와 재정을 관장하는 창부로 분리되었다.

8.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 6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외국인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케 할 것
- ② 전국의 재정은 궁내부 내장원으로 이속하고 예산과 결산은 중추원의 승인을 거칠 것
- ③ 모든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끝까지 설명하여 마침내 자복(自服)한 후에 시행할 것
- ④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것

8. 정답 : ②

② ‘헌의 6조’에서는 전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할하게 하여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사회사(私會社)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을 명시하였다.

① ‘헌의 6조’ 1조의 내용, ③ ‘헌의 6조’ 4조의 내용, ④ ‘헌의 6조’ 5조의 내용이다.

9.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일 ㉠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고운 빨간 빛의 흙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 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으므로, ㉣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 ① ㉠ 세자 - 북경에서 아담 살과 만나 교류하였다.
- ② ㉡ 포로 - 귀국한 여성 중에는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이도 있었다.
- ③ ㉢ 관소 - 심양관은 외교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④ ㉣ 임금 - 전쟁의 치욕을 벗기 위해 북벌론을 적극 추진하였다.

9.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인조 대 병자호란으로 청에 인질로 갔다가 돌아온 소현세자에 대한 내용이다.

④ 병자호란의 치욕을 벗기 위해 서인들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한 것은 효종 때이다.

① 병자호란 이후 청에 인질로 끌려간 소현 세자는 청의 수도에 머물면서 서양인 선교사 아담 샬과 교류하며 천문학과 천주교 서적 등을 접하였다. ② 병자호란 중 청은 피난 중인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후 포로가 되었다가 송환된 부녀자들을 환향녀(還鄕女)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정절을 잃고 돌아왔다 하여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고, 아내와의 이혼을 청원하는 사대부의 상소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③ 소현세자는 인질 생활 당시 심양관소에서 생활하였는데, 관소는 양국간의 각종 연락사무나 세폐와 공물의 조정, 포로를 중심으로 한 민간인 문제 등을 처리하는 일종의 대사관 같은 기능을 했다.

10.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운봉을 넘어온 ~ 중략 ~ 이 싸움에서 아군은 1,600여 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하였고, 살아 도망간 자는 70여 명 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려사》에서 인용 · 요약

① 그들로부터 개경을 수복한 정세운, 이방실, 김득배는 김용의 주도하에 살해되었다.

② 조운선이 그들의 목표물이 되어 국가 재정이 곤란해졌다.

③ 그들의 소굴인 대마도가 정벌되어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④ 그들이 자주 출몰하자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운봉에 침입한 왜구를 이성계가 격퇴한 황산대첩(1380)의 내용으로, 밑줄 친 ‘살아 도망간 자’는 고려 말에 고려를 침입한 ‘왜구’이다.

① 공민왕 대 홍건적의 두 차례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하였으나 정세운, 안우, 이방실 등이 격퇴하였다. 전란이 평정되자 공민왕은 개경으로 환도하고 홍왕사를 지어 잠시 머물렀는데, 부원배와 결탁한 김용이 공민왕 시해 목적으로 난을 일으키며 정세운, 이방실, 김득배 등이 살해되었다(1362, 홍왕사의 난).

② 왜구는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 고려 민가나 조운선을 약탈하여 조운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세곡은 정상적으로 운송되지 못하였고, 운송량은 크게 감축되어 고려 재정이 궁핍해졌다. ③ 왜구의 주요 근거지는 쓰시마(對馬)·마쓰우라(松浦)·이키(壹岐) 등의 지역이었다. 이에 고려는 박위로 하여금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다. ④ 고려 말 왜구는 초기에는 경상도 해안에 출몰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전라도 지역으로,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활동 범위가 확대되며 내륙까지 침입하게 되자 천도론이 제기되었다.

11. 조선시대의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왕세자는 궁 안의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② 성균관에는 생원이나 진사만 입학할 수 있었다.

③ 서울에는 서학, 동학, 남학, 중학이 설치되었다.

④ 향교의 교생 가운데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은 군역에 충정되기도 하였다.

11. 정답 : ②

②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시와 진사시를 통과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다. 그 외에는 4부 학당에서 생원진사시의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승보시(陞補試)를 거쳐 입학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문음(門蔭)을 통해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① 조선 시대에는 세자도 성균관 입학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궁(宮) 안에 세자시강원을 두어 세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세자가 아닌 대군(大君)에 대한 교육은 대군사부(大君師傅, 품계는 종9품)가 담당하였다. ③ 조선 시대의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서울에는 중학, 동학, 남학, 서학 등의 4부 학당이 있었다. ④ 향교에 소속되는 것은 양반 신분을 보증해 주고 군역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므로, 유생들은 향교에 소속되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군역을 면제받으려 몰려드는 양인 교생들을 줄이고 군역을 늘려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세조 때에는 교생낙강정군법(校生落講定軍法)을 마련하여 강경시험에 떨어진 교생은 무조건 군역에 충당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군 교생의 정원을 정하여 부·대도 호부·목은 50인, 도호부는 40인, 군은 30인, 현은 15인으로 하고 그 이외의 교생은 군역에 충당되었다.

12. 다음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산림경제』	나. 『색경』
다. 『과농소초』	라. 『농가집성』

- ① 가: 홍만선의 저술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가공 등을 망라하였다.
② 나: 박세당의 저술로 과수, 축산, 기후 등에 중점을 두었다.
③ 다: 정약용의 저술로 농업기술과 농업정책에 관하여 논하였다.
④ 라: 신숙의 저술로 이양법을 언급하였다.

12. 정답 : ③

③ 『과농소초』는 연암 박지원이 황해도 금천 연암골에서 생활하던 당시 경험을 반영하여 지은 농서로서 중국 농법의 도입 및 재래 농사 기술의 개량을 주장하였다.

① 『산림경제』는 홍만선이 지은 농서로 거주와 주택, 수명 연장을 위한 심신 단련법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농촌 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② 『색경』은 숙종 2년 박세당이 지은 농서로 농가에서의 필수적인 상식을 정리하였다. ④ 『농가집성』은 효종 대 신숙의 왕명을 받아 지은 농서로 중국 강남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받아들여 이양법, 견종법 등의 새로운 농법의 보급과 농업 생산력 증대에 공헌하였다.

13. 고려시대 귀족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7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② 귀족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사림 세력을 형성하였다.

- ③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④ 향리의 자제는 과거를 통하여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없었다.

13. 정답 : ③

③ 고려 시대에는 음서 제도가 시행되어 이를 통해 5품 이상 관리의 후손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었다.
 ① 고려 지배층의 핵심으로 왕족을 비롯하여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음서나 공음전 등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 ② 사림(士林)은 조선 시대 훈구 대신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도덕성과 근본주의적 성리학 이념을 강조했던 정치 집단을 말한다. ④ 고려 시대 향리의 자제는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다.

14. 다음의 ()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제의 민족분열정책과 자치운동론의 등장에 대응하여, 민족해방운동의 단결과 통일적 대응을 모색하던 사회주의 진영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은 1926년 (㉠) 선언을 계기로, 1927년 1월 (㉡)를 발기하였다. 이어서 서울청년회계 사회주의자와 산장려운동 계열이 연합한 (㉢)와도 합동할 것을 결의, 마침내 2월 15일 YMCA 회관에서 (㉣) 창립대회를 가졌다.

- | | | |
|-------|-----|-----------|
| ㉠ | ㉡ | ㉢ |
| ① 북풍회 | 정우회 | 고려 공산 청년회 |
| ② 정우회 | 신간회 | 조선민흥회 |
| ③ 정우회 | 근우회 | 고려 공산 청년회 |
| ④ 북풍회 | 신간회 | 조선민흥회 |

14. 정답 : ②

② ㉠ 사회주의계 단체인 정우회는 1926년 11월 분파 투쟁의 청산, 사상 단체의 통일, 경제 투쟁에서 정치 투쟁으로의 전환 등을 주장한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며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와의 제휴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정우회 선언은 이후 신간회 창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민족 협동전선의 창립이 목표였던 정우회 선언은 모든 사회주의 단체와 조선 공산당이 지지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진영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의 민족 협동전선인 신간회의 창립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신간회의 모태는 조선 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서울 청년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계열이 제휴하여 만든 조선 민흥회(1926. 7)였다.

① 북풍회는 1924년 11월 25일 서울에서 합법 사상 단체인 건설사(建設社)와 염군사(焰群社), 그리고 개별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서 결성되었다. 북풍회라는 명칭은 ‘북풍이 한번 불게 되면 빈대나 모든 기생충이 날아가버린다.’는 속언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고려 공산 청년회는 1925년 4월 18일 경성부 훈정동 박현영의 집에서 김단야·조봉암 등과 비밀리에 조직된 공산주의 청년동맹 조직을 말한다. 고려 공산 청년회는 1926년 6·10 만세운동을 조직하고 주도하였다. 또한 1927년 조선청년총동맹의 강령을 계급적인 것에서

전민족적으로 개정하고, 신간회 지회 설립운동에 주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강한 반일독립의 의지를 나타냈다. ③ 1927년 신간회가 출범한 이후 김활란 등이 중심이 되어,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새 생활 개선을 내걸고,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으로서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15.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한 한국정부 수립 방안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ㄱ.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
| ㄴ. 미·소 공동위원회와 임시민주정부 협의하에 미, 영, 중, 소에 의한 신탁통치 방안 결정 |
| ㄷ. 미·소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협의 |
| ㄹ. 임시민주정부 수립 |

- | | |
|-----------------|-----------------|
| ① ㄱ → ㄷ → ㄴ → ㄹ | ② ㄱ → ㄷ → ㄹ → ㄴ |
| ③ ㄷ → ㄱ → ㄹ → ㄴ | ④ ㄷ → ㄹ → ㄱ → ㄴ |

15. 정답 : ②

②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한 한국 정부 수립 방안은 ‘ㄱ.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 ㄷ. 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 권고안 제출 → 4대국 심의 → ㄹ. 임시정부 수립 → 임시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 → ㄴ. 4대국의 신탁통치 협정 공동심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16. 다음 <보기>의 ()에 들어갈 낱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중류층이 자리잡고 있었다.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 궁중 실무 관리인 (㉡),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 등이 있었다.
--

- | | | |
|------|----|----|
| ㉠ | ㉡ | ㉢ |
| ① 잡류 | 역리 | 군반 |
| ② 남반 | 군반 | 역리 |
| ③ 잡류 | 남반 | 군반 |
| ④ 남반 | 군반 | 잡류 |

16. 정답 : ③

③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중류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후삼국의 혼란을 거쳐 고려의 지배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아 지배계급의 말단 행정직으로 중간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중류층의 유형으로는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잡류, 궁중 실무 관리인 남반,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군반, 지방의 역(驛)을 담당하는 역리 등이 있었다.

17. 다음 중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국 측 기록인 『관자』나 『산해경』등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 ② 『삼국지』<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연나라가 강성해져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후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 ③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은 고조선에 망명해 와 있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 ④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 멸망했고, 이 지역에는 한의 군현이 설치되었다.

17. 정답 : ②

②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옛 기자(箕子)의 후예인 조선후(朝鮮侯)는 주(周)나라가 쇠약해지자 연(燕)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동쪽[기자조선]을 침략하여 땅을 빼앗으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도리어 연나라를 공격하여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자 하였다. 조선의 대부(大夫) 예(禮)가 간언하자 곧 그만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①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수록한 중국 문헌은 『관자』(기원전 7세기), 『위략』(기원전 3세기, 현존 X), 『산해경』(기원전 4세기), 『전국책』(기원전 361~기원전 333), 『상서대전』(기원전 2세기), 『사기』(한나라 초, 기원전 108~기원전 91), 『한서』(후한 대) 등이 있다. 『산해경』에는 고조선의 위치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고, 『관자』에는 고조선의 특산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③ 기원전 2세기 초 중국 전국 시대의 혼란한 틈을 타 고조선에 망명한 위만은 고조선의 서쪽 지방 변경을 지키며 망명한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키웠다. 그 후 위만은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 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④ 위만 왕조의 고조서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아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또한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대립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의 무제는 수록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접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18. 다음 지문과 관계있는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건대, 조선 총독 및 각 관공리,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정탐노·매국적, 적의 일체 시설물, 이 밖에 각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하고 중상하는 자는 폭력으로써 대응할지니라.

- ① 1932년 1월 이봉창은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왕 히로히토를 저격하였다.

- ② 1932년 4월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제의 요인들을 폭살시키는 의거를 결행하였다.
- ③ 1920년 박재혁은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결행하였다.
- ④ 1926년 나석주는 식민지 대표 착취 기관인 식산 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권총으로 관리들을 저격하였다.

18.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의열단의 강령인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이다.

④ 의열단원 나석주는 신채호가 제공한 폭탄 두 개를 받아 휴대하고 인천항으로 단신 입국한 뒤 곧장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에 폭탄을 던져 건물을 부수고 일본인 7명을 총격 살상한 후 경찰대와의 교전 끝에 자결하였다.

①, ② 이봉창과 윤봉길은 한민애국단 소속이었다. ③ 밀양 경찰서 투탄 의거(1920. 12)를 감행한 의열단원은 최수봉이고, 박재혁은 부산 경찰서 투탄 의거(1920. 9)를 감행하였다.

19. 다음 중 통일신라시대의 사회와 경제 관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② 성덕왕대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③ 헌강왕대에 녹읍이 부활되고, 경덕왕대에 관료전이 폐지되었다.
- ④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 문서는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9. 정답 : ③

③ 경덕왕 대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祿俸)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주었다.

① 신문왕 대 문무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녹읍을 폐지(689)하였다. ② 722년 성덕왕 대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백성에 대한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전을 지급하였다. ④ 신라 촌락문서에서는 해당 촌락의 전체 주민 수를 성별과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하고 노비의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하지만 이름이나 나이를 표기하지는 않았다.

20. 다음의 비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라총관 목극등은 국경을 조사하라는 교지를 받들어 이 곳에 이르러 살펴보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정해 강이 갈라지는 고개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하노라.

- ① 조선과 청의 대표는 현지 답사를 생략한 채 비를 세웠다.
- ② 토문강의 위치는 간도 귀속 문제와도 관련이 되었다.
- ③ 국경 지역 조선인의 산삼 채취나 사냥이 비 건립의 한 배경이었다.

④ 조선 숙종대 세워진 비석의 비문 내용이다.

20.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1712년 세워진 ‘백두산정계비’이다.

① 백두산 정계비는 청나라의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 등과 조선 관원들의 현지 답사로 세워졌다.

② 백두산 정계비에는 조선과 청의 양국 간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로 적혀 있으나,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거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에서는 토문을 만주의 송화강(松花江)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청나라에서는 두만강(豆滿江)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③, ④ 백두산 정계비 설치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봉금(封禁) 국경 지역이 산삼의 다수확 지역이라는 점이었다. 인삼 채취를 위하여 월경하여 양국간 외교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청에서는 조선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였고, 결국 숙종 때인 1712년 이르러 정계비를 세우게 되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